WWW.KMI.RE.KR

제 221호·2013년 9월 11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미국, TIGER Ⅴ 프로젝트 통해 항만에 보조금 지급
2. 터키 기업, 투르크메니스탄 신항 건설 수주
3. Global Ports사, NCC그룹 인수 추진
4. 프랑스 르아브르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위한 참여의향서 모집공고

물류시장동향

1. Maersk Mc-Kinney Moller, 모로코 Tangier의 APM 터미널에 입항
2. DHL Freight, 유럽지역 당일배송 서비스 EURAPID 개시

공지사항

「2013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미국, TIGER V 프로젝트 통해 항만에 보조금 지급

○ 미국 교통국(DOT:Department of Transport)은 총 104백만 달러의 항만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임
- 동 보조금은 항만의 물동량 처리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지원
- 보조금의 재원은 경제회복 교부 프로그램인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의 FY2013 예산의 일부

○ 직접 TIGER V 프로젝트에 포함된 항만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잭슨 컨트리 항만공사 : 파스카골라항 인터모달 개선 14백만 달러
- 다이아몬드 주 항만 운영회사 : 5/6번 선석 리모델링 10백만 달러
- 둘루쓰 씨웨이 항만공사 : 둘루쓰항 인터모달 개선 10백만 달러
- 휴스톤 항만공사 : 휴스톤항 베이포트의 와프 개선 10백만 달러
- 메랠랜드 항만 위원회 : 볼티모어 항만 확장 10백만 달러
- 이스트포트 항만공사 : 이스트포트 방파제 교체 6백만 달러
- 오스웨고항 : 동쪽 터미널 인터모달 연결 1.5백만 달러
- 가리발디항 : 가리발디항 워프 활성화 1.5백만 달러

○ 아돌프 오자드(Adolph Ojard) 둘루쓰 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은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함

○ TIGER V 프로젝트 내 항만관련 이외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사우쓰 플로리다 화물과 여객 레일 확장
- 델타 프레임 다리 건설
- SEPTA-CSX 분리 프로젝트
- 항만의 투싼 컨테이너 수출 철도 시설

< 미국, 항만물류 개선에 104백만 달러 보조금 지원 >



자료 : http://www.portstrategy.com/_data/assets/image/0005/856517/Finance-dollar.jpg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3.9.6.

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터키 기업, 투르크메니스탄 신항 건설 수주

○ 터키 기업인 Galik 홀딩스의 자회사인 Gap Insaat가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메니스탄 신항(Trukmenbashi International Port) 건설 사업을 수주함
- 이 사업은 20억 달러 규모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Gurbanguly Berdimuhamedov)과 터키 수상(Recep Tyyip Erdogan)이 투르크멘바쉬에서 계약을 체결

○ 향후 건설될 신항은 페리부두, 일반부두, 액체부두, 컨테이너부두, 조선소(신조), 수리조선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에 완공될 예정임
- 총 개발 면적은 1.2백만㎡이며, 총 선석 길이는 3,607m로, 신항 완공 이후 투르크멘바쉬항의 하역능력은 현재 1천만톤에서 2천 5백만 톤으로 증가
- 페리부두는 연간 30만명의 여객과 7만 5천대의 차량을 처리하고, 일반부두에서는 섬유, 액체부두에서는 원유 및 가스가 처리될 예정

○ 터키가 그루지아 바쿠(Baku)와의 철도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신항 개발 이후 터키~바쿠 연결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루트 확대가 가능함
- 특히, 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운송루트가 확대되면 수출경로 다변화가 가능

○ 한편 2013년 상반기에 발주된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설 사업 중 33건을 터키 건설회사가 수주하였고,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라크 건설회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항만을 포함한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건설 시장에서의 터키 점유율은 부동의 1위를 고수

○ 투크르멘바쉬 신항은 네덜란드의 Royal haskoning, 우리나라 등에서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 국제입찰로 진행된 사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기업이 신항 설계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좌절

○ 반면 터키의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항만 및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흥 시장의 경우 국가별 거래 관행이 달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
- 따라서 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해외항만 건설진출 확대가 긴요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www.cacianalyst.org, www.worldmaritimenews.com, 2013.8.23.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Global Ports사, NCC그룹 인수 추진

○ Global Ports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NCC그룹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는 2013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Ports사는 2억 9,0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증자된 주식자본의 18%로 NCC그룹을 100% 인수하는 바인딩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인수자금은 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예정

○ 현재 NCC그룹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들은 러시아 컨테이너 화물의 주요 관문인 발틱해에 위치하며, NCC그룹은 2012년 2억 5,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

- NCC그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FCT(First Container Terminal) 지분 100%와 FCT의 내륙 CY 역할을 수행하는 인근의 LT(Logistika-Terminal) 지분 100%, 그리고 우스트루가(Ust-Luga)항[1]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인 ULCT(Ust-Luga Container Terminal) 지분 80%를 보유

○ Global Ports사는 현재 러시아와 핀란드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롤레스포트(Petrolesport)와 모비딕(Moby Dik), 그리고 보스토치니(Vostochny)항의 VSC(Vostochnaya Stevedoring Company) 등 3개 터미널과 핀란드 헬싱키(Helsinki)와 코트카(Kotka)의 멀티링크 터미널 2개를 운영 중
- 그밖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야니노 물류단지(Yanino Logistics Park)의 지분 75%와 에스토니아의 주요 석유터미널인 AS Vopak E.O.S.의 지분 50%를 보유

○ Global Ports사는 이번 인수가 법적 승인을 받게 된다면 고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에서 자사의 위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Global Ports사는 인수가 완료되면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하역능력을 약 112만 TEU 확보할 것으로 추정[2]
- 한편, APM 터미널[3]로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대주주로 있는 Global Ports사의 추가적인 하역능력 확보를 통해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운영효율성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9.2.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음.
2) 현재 NCC그룹이 보유한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은 169만 TEU로, 여유 하역능력은 Global Ports사와 NCC그룹의 하역능력에서 2012년 물동량을 제외한 수치임.
3) Global Ports사는 N-Trans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러시아 사회기반시설 그룹인 TIHL(Transportation Investments Holding Limited)과 APM Terminals이 각각 37.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시장에 공개됨.

□ 프랑스 르아브르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위한 참여의향서 모집공고

○ 프랑스 르아브르항을 운영하는 Grand Port Maritime du Harve(GPMH)는 2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 각각에 대한 참여의향서 모집을 공고함
- GPMH는 항만의 지속적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르아브르항 Asie and Osaka 부두와 Port 2000의 11, 12번 선석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 컨테이너 하역능력을 확장할 계획
-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2013년 10월 1일까지 참여의향서 제출
- 입찰자는 단독 입찰 또는 컨소시엄으로 입찰 가능

○ 첫 번째 대상지역은 Asie 및 Osaka 부두로 각각 1990년과 1993년에 완공된 부두임
- Asie 부두길이는 610m, Osaka 부두길이는 430m 이며, 안벽수심은 13.5m 이고, 갠트리 크레인을 위한 선로 폭은 21.5m, 개발대상 부지 면적은 35Ha이며 63Ha까지 확장 예정
- 해당지역은 철도, 도로 및 강과 연결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유류터미널 위치
- 사업대상 지역은 입찰자의 사업일정 또는 GPMH의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 전체 또는 일부만 지정 가능
- 2012년에 인도된 ZPMC의 파나막스급 이상 두 대의 갠트리 크레인이 현재 Asie 부두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찰자는 계약금과 함께 구입 제안 가능

○ Asie 및 Osaka 부두에 대한 GPMH의 투자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예정임
- 기본적으로 GPMH가 안벽수심을 최대 15m까지 증심
- 선정된 입찰자의 요구 또는 기술적 검토에 따라 향상된 처리능력을 보유한 갠트리 크레인을 위한 새로운 궤도 설치
- 입찰자는 GPMH에게 추가적으로 후방 갠트리 크레인 궤도를 Asie Quay에 설치할 것을 제안 가능
- 기존 확장계획 및 입찰 시 약속한 추가 물동량에 따라 GPMH는 Asie Quay를 서쪽으로 최대 910m 까지(추가적인 부두배후 면적 확장 포함) 확장 가능하며 안벽수심은 15m 유지
- 일반적으로 해당 투자계획은 선정된 입찰자와 GPMH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또다른 개발 대상지역은 Port 2000의 11, 12번 선석 및 관련 지역임
- Port 2000의 11번, 12번 선석의 총 안벽길이는 700m이고 안벽수심은 17m, 개발대상 부지 면적은 36Ha이며 철도, 도로 및 강과 연결

○ Port 2000의 11, 12번 선석에 대한 GPMH의 투자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예정
- GPMH는 안벽을 건설하고 관련 준설을 수행, 부두 전면의 갠트리 크레인 궤도의 경우, GPMH는 기초만 담당
- GPMH는 추가적으로 터미널과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주 빗물 배수관과의 연결에 대한 책임 보유
- 또한 GPMH는 준설작업으로 인해 조성되는 예비공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용계획 제공 예정

- Asie Quay와 마찬가지로 입찰자는 GPMH가 추가적으로 후방 갠트리 크레인 궤도를 설치할 것을 입찰서에서 제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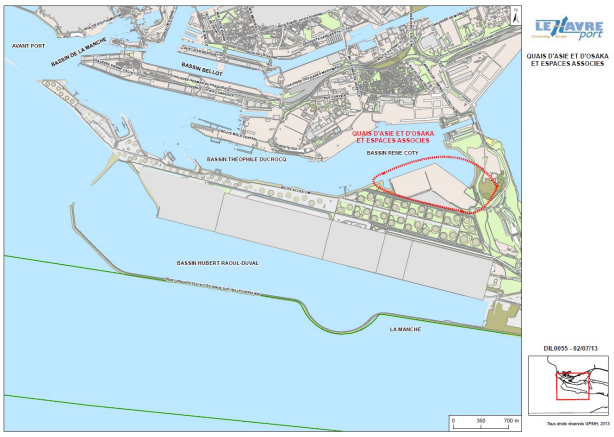
○ 모든 입찰자는 2013년 10월 1일 오후 5시까지 하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GPMH에 제출해야 함
- 입찰자 관련 서류
  · 입찰편지 - 이름, 입찰능력, 연락처 등을 명기. 컨소시엄의 경우 각 컨소시엄 구성원이 입찰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컨소시엄 내에서의 역할도 명기
  · 각 입찰자가 파산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
  · 입찰자의 과거 회계연도 3년간의 전반적인 매출 및 해당사업 관련 매출 실적
  · 대차대조표, 과거 회계연도 3년간의 이익 및 손실 등을 나타내는 자료 등
  · 사업 수행에 있어 각 입찰자의 자금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유사 또는 관련 분야 운영에 있어 입찰자의 전문성 등 제시
  · 입찰자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력, 그리고 향후 3년 동안의 연간 노동력 제시
  · 그 외 기타 서류는 르아브르항 사이트(http://www.havre-port.fr/en/)의 공고문 참조
- 사업 수행계획 관련 서류
  · 해당 지역에 대한 활동 계획 - 목표 물동량, 자체 투자, GPMH에 기대하는 투자, GPMH 보유 갠트리 크레인에 대한 구입의사, 사업일정 및 주요 완료일 등
  · 사업 관련 주요 재정적 쟁점 사항
- 입찰서류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며 GPMH에 일반 서류형태로 5부, 전자매체(CD-R 또는 USB Keys) 형태로 5부 제출

○ 입찰관련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문의는 마감일 15일 전까지 서면(편지, 팩스 또는 이메일) 형태로 하기 연락처로 수행되어야 함
- 기술관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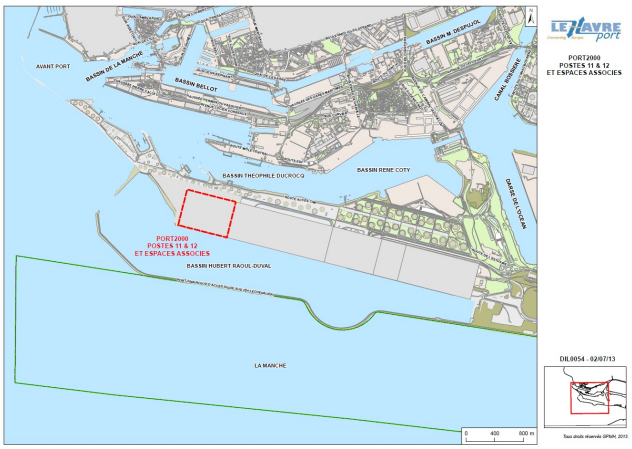
  Direction de la Zone Industrialo-Portuaire
  Grand Port Maritime du Havre
  Terre-plein de la Barre – C.S. 81413
  76067 LE HAVRE CEDEX
  SECRETARIATDZIP@havre-port.fr
- 행정관련 정보

  Service des Achats / Pôole Marchées
  Grand Port Maritime du Havre
  Terre-plein de la Barre – C.S. 81413
  76067 LE HAVRE CEDEX
  pahmarches@havre-port.fr

< ASIE & OSAKA QUAY >



< Port2000 Berth 11 & Berth 12 >



자료 : www.havre-port.fr/en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3.9.3.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Maersk Mc-Kinney Moller, 모로코 Tangier의 APM 터미널에 입항

○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8,000TEU급 선박인 *Maersk Mc-Kinney Moller*호는 모로코 APM Terminals Tangier에서 7,804TEU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모로코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 중 척당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한 것임

- 머스크사의 Triple-E 시리즈 첫 번째 선박인 *Maersk Mc-Kinney Moller*호는 현재 첫 항해 중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해 중에 모로코에 입항하였으며, 수에즈 운하를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기항할 예정
- APM Terminals Tangier는 APM Terminals(90%)와 모로코 AKWA Group(10%)이 합작투자한 터미널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9.9.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DHL Freight, 유럽지역 당일배송 서비스 EURAPID 개시

○ DHL Freight는 유럽 14개 국가에서 소량혼적화물의 당일배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DHL Freight는 지난 9월 2일부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을 대상으로 최대중량 2.5t 화물까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
- 대상 국가들은 유럽 전체 수출입의 74%가 집중되어 있는 GDP 상위권 국가들로, 차후 다른 국가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DHL Freight의 EURAPID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4시간 이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르셀로나까지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도 가능
- DHL Freight의 EURAPID 서비스는 일반화물뿐만 아니라 위험화물의 운송도 가능하며 적하보험, 통관서비스, 고객맞춤형 물류보고서 등 부가가치 서비스도 함께 제공

자료 : www.postandparcel.info, 2013.9.2.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2013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분석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 + 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 (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금액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3. 9. 5(목) 09:00 ~ 10. 4(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의 양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ㅇ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ㅇ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0월20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ㅇ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 공동추진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 단독추진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